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지킵시다! 9월 21일

교사의 진심이 교육을 바꿉니다



기 독 교
대한감리회 교육국

CONTENTS

목회서신

교사의 진심이 교육을 바꿉니다

3

감독회장 전용재

설교

서로 격려하라 (살전 5:12-14)

5

교육국위원장, 중부연회 감독 고신일

역사

첫 번 기독교교육 진흥주일과 그 프로그램

10

박춘희 목사

자료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프로그램

16

권지영 목사

SISTER전도를 통한 교회학교부흥과 가정구원

21

김성기 목사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26

김경민 전도사

교사, 진심이면 된다

32

오선화 작가

당신과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는 아홉 가지 두려움

39

김선희 전도사

내 감정, 내 맘대로

45

최동현 목사

선생님 힘내세요

51

이세나 전도사

교사의 진심이 교육을 바꿉니다.

전용재 감독회장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섬기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9월 셋째 주일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정한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진흥책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된 주일입니다.

자랑스러운 감리교회는 고종황제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의 윤허를 받은 것을 계기로 “배재학당”을 시작으로 “이화학당”, 평양 광성학교, 정의여학교, 영명학교, 인천 송도학원 등을 건립하여 교육사업과 교회학교(주일학교)를 통해 민족교육과 신앙교육을 통해 민족과 대중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민족적 지도자를 배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통계표를 보면 2006년 이후 원입인(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과 교재, 물질적 지원, 교사의 수준들이 초기 선교 때보다 더 좋음에도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란 가치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나와 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너그러운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솔깃해 보이나,

우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이 존중 받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리회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본 받아 교회학교 교사
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독교교육의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풍성한 열매
로 거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삶의 기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전통이나 제도를 고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제도를 강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힘든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런 시대에 기독교교육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인적 자원과 공간, 시간을 투자하고, 교육 자료와 활동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투자에 비해 결과물이 늦게 열리므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이 존중 받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리회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교육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독교교육 진흥 주일의 주제를 “교사의 진심이 교육을 바꿉니다”로 정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본 받아 교회학교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독교교육의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심은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교사들의 진심어린 눈물의 기도와 땀의 헌신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로 거둘 것입니다.

이 땅에 아이들이 분명 우리의 미래이자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실의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요셉과 다니엘이 죄의 유혹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라

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14절

고신일 중부연회 감독, 교육국 위원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하여 좌절했을 때, 어떤 말이 듣고 싶겠습니까?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하는 비난이나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거야’라는 판단의 말이 아닙니다. ‘잘 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와 같은 격려의 말입니다. 인생길에서 험한 계곡을 헤매게 되어도 격려 받은 말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격려의 핵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하였고, 《툼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한 마디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절할 때 꼭 필요한 격려의 말을 듣게 되면, 한 달 동안만 기쁜 게 아닙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힘이 납니다.

격려의 핵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의 변호사 엄상익이라는 분이 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창원은 강도 살인을 범한 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1997년 탈옥했다가 1999년 검거된 인물입니다. 그 책에는 각종 신기록을 수립하며 1997년 부산교도소 탈옥 후 907일 만에 검거된 신창원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를 받으면 어떤 일이든 더 잘해 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신바람이 나게 하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하고 머리 한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 하러 학교와, 빨리 꺼져라’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 말이 그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때 만약 선생님이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했다면 신창원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를 받으면 어떤 일이든 더 잘해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신바람이 나게 하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 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눅 18:27)고 하십니다. ‘저는 너무 지쳤어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마 11:28-30)고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요 13:1, 요 15:9)고 하십니다. ‘더 이상 못해요’라고 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리라’(고후 12:9)고 하십니다. ‘앞이 캄캄해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잠 3:5-6)고 하십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라고 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가 있다’(롬 8:28)고 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요일 1:9, 롬 8:1)고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헤쳐 나갈 수 없어요’라고 하면, ‘네 모든 필요를 채우마’(빌 4:19)고 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라고 하면,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벧전 5:7)고 하십니다. ‘너무 외로워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히 13:5)고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격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려가 가득한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편지 중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주후 50년경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20년이 채 안되었을 때 쓰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박해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행17:1-9). 그 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잘 견디고 있으며 다른 지방에까지 그 믿음이 본이 되고 있고(살전1:2-10, 2:14-16), 바울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살전3:6).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아낌없이 격려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살전 1:2~3)한다고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살전 1:6~7) 했으며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살전 1:8)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살전 3:7)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구절들을 통해 격려하며 칭찬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교회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양 무리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는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고, ‘다스리며’는 교인들을 치리(治理)한다는 뜻이며(딤후 3:4, 5, 12), ‘권하는’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훈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수고하고/다스리며/권하는)을 ‘너희가 알고’ 하였습니다. ‘알고’의 원어의 뜻은 ‘가치를 안다’는 뜻으로, 영어(NIV) 성경에서는 ‘존경하다(respect)’로 번역하였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성경에는 ‘존중하다(honor)’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즉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것’이 위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살전 1:2~3)한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출 34:6; 시 103:8).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며 제일 먼저 한 말이 ‘오래 참는 것’(고전13:4)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이고 격려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해야 할 다양한 격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살전 5:14)하였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에 사용된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로서 낙오한 병사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낙오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격려와 충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했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없는 자들이란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는 것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출 34:6; 시 103:8).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며 제일 먼저 한 말이 ‘오래 참는 것’(고전13:4)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우리를 ‘격려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회사에서 만난 직원들을,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들간에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교사로 부름받은 분들은 학생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개체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위해 물심양면 애쓰는 교사들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학교가 든든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권제하며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도 서운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복음사가 가사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어린 영혼
들을 위로하고 격려하
사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보세요. 용기를 주고 위
로해 보세요. 사람이 달
라잡니다.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깎아 내리
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세
워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럼 ‘여러분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어린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보세요. 용기를 주고 위로해 보세요. 사
람이 달라잡니다.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깎아 내리는 말을 하지 마
세요. 세워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 속에서 자란 아
이는 비난을 배우고,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며, 적
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웁니다. 하지만,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우며,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역
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 기독교교육 진흥주일과 그 프로그램

박춘희 목사(새소망교회)

매년 9월 셋째 주일은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이며, 그 주간은 ‘기독교교육 진흥주간’이다. 그 역사와 전통은 무려 70여 년이나 된다. 자랑할 만한 전통이다. 그러나 지금 이 아름다운 전통을 교회들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지금은 교회 성장과 부흥이 매우 힘든 시기이거나 정체되어 있는 시기이다. 더구나 교회학교는 위기를 느낄 만큼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 좋은 프로그램을 잊고 있거나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인 듯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마다 진흥주일과 진흥주간을 지켜서 다시 한 번 교회학교마다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번 기독교교육진흥주간의 취지와 프로그램, 그리고 오늘날에 적용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은 교육부와 교회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로서는 교회교육에 관심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기회이고, 교회학교로서는 교사를 훈련하고,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고, 교육전반을 점검하여 그 진흥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교회학교 프로그램 중에 계절학교인 여름성경학교나 겨울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등은 모두 학생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이하는 편의상 ‘진흥주일’이라고 씀)은 교육부와 교회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로서는 교회교육에 관심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기회이고, 교회학교로서는 교사를 훈련하고,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고, 교육전반을 점검하여 그 진흥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다.

금년도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은 9월 21일이다. 진흥주간은 진흥주일 전 주간, 혹은 진흥주일 다음 주간이 되는데, 과거의 예로 보면 어느 해는 진흥주일 전에 지키고, 어느 해는 진흥주일 후에 지키는 것으로 하

‘진흥주일’이라는 용어는 1933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감리교 공적(公訃) 기관지인 당시의 <감리회보>에 발표된 연도와 연회에서 진흥주일에 관하여 보고한 연대가 1933년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다.

여 일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독교교육 진흥주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간을 일정하게 결정하여 전국 교회에서 함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제정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은 언제 제정되어 시행하였을까? 1933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어떠한 문헌에도 ‘진흥주일’에 대한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해를 포함한 그 이후의 문헌에는 그 용어가 계속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1933년을 진흥주일 시작의 해로 잡을 수 있겠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로 분명해 보인다.

우선 하나는 1933년 이후로 매년 ‘제 몇 주년 진흥주일’이라는 횃수가 년도 산정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1933년 3월, 중부연회 교육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9월 제4주일은 청년주일로 지키자.”(기독교대한감리회 제3회 중부연회록, p.70)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1933년 이전에 이미 9월 셋째 주일을 진흥주일로 지키고 있었다면, 일 주 차를 두고 연속행사를 하도록 정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1932년까지만 해도 진흥주일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진흥주일’이라는 용어는 1933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감리교 공적(公訃) 기관지인 당시의 <감리회보>에 발표된 연도와 연회에서 진흥주일에 관하여 보고한 연대가 1933년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다.

1933년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4회 중부연회의 교육국 보고에서는 “진흥주일 순서-회보에 발행”(기독교대한감리회 제4회 중부연회록, P.114) 이라 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해주남본정(海州南本町) 교회에서 열린 제4회 서부연회 교육위원 보고에서는 “교육국의 비용을 보충키 위하여 주일학교 진흥주일에 주일학교 학생에게 매 1전씩 수합케 하되 그 실행 방법은 교육국에 위임함”(서부연회록 P.46)이라 되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곳의 회의 보고에서 1933년도로 일치하고 있다.

이 운동은 따로 진흥주일이라는 절기가 없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진흥운동을 양성화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보고 중에서 “진흥주일순서-회보에 발행”에 나오는 “회보”란 1933년 1월부터 펴내기 시작한 <감리회보>(監理會報)를 줄여서 “회보”라고 썼으리라고 추측된다. 바로 그 회보, 즉 감리회보 제1권 제9호인 1933년 9월호에는 “振興主日을 어떻게 지킬가”라는 제호 아래 그 내용을 11~12, 두 면에 걸쳐 쓰고 있다.

그런데 감리회본부 교육국 기관지였던 <교회와 교육>(제13집 1982년 9월호 P.4)과 <감리교교육>(제14집 1983년 9월호 P.2)에는 진흥주일의 제정 일자를 1933년 8월 28일로 잡고 있다. 이것 또한 위에서 언급한 ‘주일학교 진흥주일’에 관한 글이 처음으로 실려 있는 감리회보의 발행일과 일치하고 있다.

첫 번 진흥주일의 취지

그러면 진흥주일을 제정한 취지는 무엇일까? 이것은 상기(上記)한 바와 같이 감리회보 제1권 9호에 실려 있는 “振興主日을 어떻게 지킬가”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왜 하필 여름을 보내고 가을로 접어드는 때를 택했는지에 대하여서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 우선 여름철 농촌에서는 바쁘고 도시에서는 고향으로 가거나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교회가 비게 될 뿐 아니라, 교회교육에 열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에 접어들면 농촌은 덜 바쁠 뿐 아니라 도시 교회도 교사와 학생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소홀히 하고 약화되었던 교회학교 ‘세력회복운동’ 곧 ‘진흥운동’을 이러한 기회에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운동은 따로 진흥주일이라는 절기가 없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진흥운동을 양성화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 진흥주일의 프로그램

그러면 첫 번 진흥주일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지켰는가? 이것은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적용하거나 응용해야 할 만큼 매우

진흥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 하루 만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로 결국 몇 주간에 걸친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흥주일 행사를 꼭 지키고자 하면, 주간 행사도 따라서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잘 구성되어 있다.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진흥주일 전에 할 일, 그 당일에 할 일, 진흥주일 후에 할 일이 각각 4가지 씩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진흥주일 전에 할 일

- ① 교사 방문(교장이나 부장이 직원, 또는 교사를 방문, 상의함)
- ② 결석생 복교운동(담임이 학생방문, 또는 우편물로 출석 촉구)
- ③ 보결생(신입)모집(재적생 외에 신입생 모집)
- ④ 준비(교사회, 명부정리, 집회프로그램, 장식)

(2) 진흥주일 당일에 할 일

- ① 문에서 학생 환영(꽃이나 표를 달아줌)
- ② 각부 연합예배
- ③ 직원 간담회(목사, 중요 직원, 교회학교 각부 직원 등으로 구성)
- ④ 종교교육 강연회(강사초빙)

(3) 진흥주일 뒤에 할 일

- ① 환영 음악회(출타하였던 교사와 학생, 또는 신입생을 위하여)
- ② 내용 충실에 역점을 둠
- ③ 소학교와 연락을 가짐
- ④ 가정과 연락을 가짐

위에서 살펴 본 대로 진흥주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그 전의 할 일과 당일, 그리고 후에 할 일로 나누어 알차게 보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진흥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 하루 만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로 결국 몇 주간에 걸친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흥주일 행사를 꼭 지키고자 하면, 주간 행사도 따라서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에 되새겨 볼 사항

첫 번 진흥주일 프로그램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특히 교회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절기 행사나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전반에 대하여 학생 가정과 정기적인 연락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어떠한 것은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또 어떤 것은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혀 새롭게 우리 교회 형편과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처음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처음 프로그램에는 본래의 취지가 담겨 있으므로) 각 교회의 실정에 맞도록 응용해 본다면 어떨까!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이 더 발전되기를 바란다.

첫 번 진흥주일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되새겨 볼 사항이 있다.

첫째로 진흥주일 전에 교장이나 부장이 교사를 방문한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학생을 방문하는 일은 흔히 하는 일이나, 교장이나 부장이 교사를 방문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은데, 오늘 날에 새롭게 권장하고 싶다.

그 다음으로 특기할 점은 진흥주일 후에 교회학교가 당시의 소학교와 가정과 연락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어떠한 내용의 연락을 취하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역시 오늘에도 실천하고 싶은 내용이다. 학교와는 어렵겠지만 학생들의 가정과는 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고 연락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교회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절기 행사나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전반에 대하여 학생 가정과 정기적인 연락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셋째로 첫 번 진흥주일에는 진흥주일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다는 사실이다. 이 노래는 악보와 함께 실려 있어 전국교회에서 함께 불렀을 것이다. 오늘 날에도 이런 진흥주일 노래가 불리기를 바란다. 옛적 이 노랫말과 곡을 현대 감각에 잘 맞게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가사와 곡을 만들어 진흥주일에 또 다시 불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래에 당시에 불렀던 진흥주일 가사를 소개한다.

진흥주일 노래

1. 여름은 다 가고 가을이 왔다고
산도 노래하고 물도 지저귄다
떠돌던 운무는 멀리 사라졌고
홀로 푸른 하늘 맑고도 높고나
2. 하늘이 맑으니 이내 맘 맑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네
하늘이 높으니 이내몸 높아져
주님의 온전함 닮기를 원하네
3. 동모야 모여라 네 뜻을 이루라
주님의 교훈을 전키는 이곳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배우자
네 원함 주께서 이루어 주리라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프로그램

권지영 목사(평동교회)

기독교 교대한감리회가 정한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은 매년 9월 셋째 주에 돌아온다. 이는 기독교 교육을 새롭게 일으키고, 교육을 통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주일이다. 교회 성장과 부흥이 정체되어감에 따라, 교회학교는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회학교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말과 함께 심지어 교회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흘러나온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교육의 정체성과 목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의 정신을 계승하여 적용하는 것은 교회 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의 목적을 회복하며, 각 교회에 적용과 실천이 가능한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교육 진흥운동이 시작된 것은 1929년 조선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최한 제3회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이며, 주일학교 배가운동의 안건으로 4년간 주일학교 진흥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주일학교 교사의 성경숙달, 2년 차에는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 3년 차에는 주일학교 교사의 배가양성, 4년 차에는 주일학교 학생 배가모집에 초점을 맞추어 진흥방침을 세웠다. 1933년에 8월 29일을 주일학교 진흥주일로 제정했으며, 그 후 기독교교육 진흥주일로 명칭을 바꾸어 9월 셋째 주일로 고정되었다. 9월 1주부터 3주까지 진흥운동기간으로 정하여, 온 교회에 종교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하고, 출석 장려와 학생모집을 하였으며, 주일학교 교사의 신앙심과 헌신적 생활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현재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양적 성장의 둔화 앞에서 무턱대고 교육의 규모와 질적 수준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처음 시작 시의 환경과 현재의 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의 정신을 계승하여 적용하는 것은 교회 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의 목적을 회복하며, 각 교회에 적용과 실천이 가능한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제임스 스마트(James D. Smart)는 그의 저서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서 ‘교육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며, 교육의 기능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잃어버린 교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은 교육이 단지 몇 명의 교회학교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 교회가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의 프로그램은 교육 부서에만 국한되어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여러 활동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감리교회 기독교교육 진흥운동의 초기 방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사를 양성하고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은 여름 교육행사들을 마치고 하반기를 이끌어가는 교사들에게 있어, 새 힘을 북돋워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교사는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이들 모르게 수고와 헌신을 쏟는 직책이다. 이러한 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때,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며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 또한 교사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들은 사역에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연합예배

교육에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세대가 연합해 예배드리는 것이다. 연합예배로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한국 감리교회 기독교교육 진흥운동의 초기 방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사를 양성하고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은 여름 교육행사들을 마치고 하반기를 이끌어가는 교사들에게 있어, 새 힘을 북돋워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멘토링이 무엇
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
신 모범이시다. 수많은 백
성들을 만나 그들에게 하
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
기도 했지만, 예수님 가
까이에 있는 제자들의 삶
속 깊숙이에 그들의 멘토
가 되어 멘토링을 하셨
다. 이러한 멘토링의 기
본은 돌봄이다.

소통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 공동체로 부름 받았음을 상기할 수 있다. 예배의 임사를 교육부서에 속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맡길 수도 있다. 예배 시 공동체의 하나 됨을 기억하며 성만찬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연합예배 시, 각 부서별로 기도제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상영할 수 있다. 현재의 예배 모습 실황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보여줌으로, 모든 성도들이 교육부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과 함께 기도카드를 제작해 줄 수도 있다.

교육부서 사진전

2014년도를 돌아보며 각 부서별 주요 활동이 담긴 사진들을 인화해, 사진전을 기획한다. 사진전이 진행되는 장소는 교육부서의 공간이 아닌, 전교인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으로 정한다. 누구나 와서 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며, 각 부서가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인다. 흥미의 요소를 더하기 위해, 사진전을 보는 이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에 스티커 같은 보조물로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사진전이 끝난 후, 사진에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부서를 시상하는 것도 좋다.

1:1 멘토링, 중보기도자 모집

멘토링(mentoring)이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1:1로 지도와 조언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멘토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시다. 수많은 백성들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의 삶 속 깊숙이에 그들의 멘토가 되어 멘토링을 하셨다. 이러한 멘토링의 기본은 돌봄이다. 교회 안에서도 1:1로 교회학교 학생과 장년층, 혹은 교회학교 내 부서 간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다.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한 명씩 짝을 이루어 진행하며, 짧게는 월간, 길게는 연간 단위로 조직한다. 멘토는 멘티에게 신앙생활 및 삶의 전반에 있어 돌봄을 제공하고, 멘티 역시 멘토의 돌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원활한 멘토링을 위해 미션을 부여하거나 활동사진들을 수집할 수도 있다. 멘토링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한 해의 반 이상이 지나 오는 동안 수고하고 헌신해준 교사들을 위해, 온 교회가 격려와 칭찬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을 진행하기에 세대 차이가 지나치게 크거나 인원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 중보기도자 모집을 진행해도 좋다. 1:1로 연계하여 중보기도자를 연결시켜주며, 상시 기도제목을 나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멘토 또는 중보기도자 모집 시,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피한다. 공개적 신청을 받을 경우 지나친 신상 공개로 인해 불편해하거나, 몇몇에게 지원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멘토나 중보기도자를 사전에 모집 하고, 교육본부 측에서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연계시켜주도록 한다.

모범교사 시상

교회학교 교사 사역을 하면서 타에 모범이 되는 교사, 혹은 장기근속 교사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시상은 주일 예배 광고시간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교사의 헌신과 수고를 격려하도록 한다. 타에 모범이 되는 교사의 경우 추천사유를 받도록 하고, 장기근속 교사의 경우 기록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장기근속의 기준은 교회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혹은 그 이상) 정도의 기준을 두고 시상한다. 시상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단기 게시물을 함께 제작하여 알림판에 게시하는 것이 좋다. 사진과 함께 추천사유나 교사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볼 수 있게 한다. 교사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분위기는 교사 스스로도 사명을 되새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교육을 맡은 이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교사 격려 편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한 해의 반 이상이 지나오는 동안 수고하고 헌신해준 교사들을 위해, 온 교회가 격려와 칭찬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개인적으로 편지를 작성해 교육본부에서 취합하여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각 교사별로 롤링페이퍼를 만들어 게시한 뒤, 모든 교우들이 격려의 글을 쓰도록 할 수도 있다. 혹은 포스트잇과 같은 작은 메모지에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도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 개개인

시대는 변할지라도 교육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사사기의 암흑시대를 열었던 문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사사기 2:10)’였다.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한국 교회의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에게 격려와 사랑, 칭찬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교사 세미나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은 목회자의 소명과 다르지 않음을 생각해야 한다.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동시에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이며 청지기이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이다.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더욱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교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 먼저는 교사의 영성을 함양할 수 있는 세미나이어야 한다. 이 시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여름 교육행사를 마치고 영적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다. 따라서 교사들이 말씀 안에 다시 한 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하여 영성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세미나이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급격한 사회문화 변동 속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소통하기 위한 내면이해, 커뮤니케이션 기술, 상담기법 등에 대한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세미나를 통하여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게 될 때, 교회학교는 더 튼튼한 기반 위에 성장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살펴해보았다. 모든 활동들을 다 적용하기 보다는,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진행하기를 바란다. 교육은 일 년에 한 주, 혹은 2-3주 정도의 기간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교육 진흥주일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주간에도 기독교교육을 강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시대는 변할지라도 교육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사사기의 암흑시대를 열었던 문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사사기 2:10)’였다.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한국 교회의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SISTER 전도를 통한 교회학교부흥과 가정구원

김성기 목사 (SISTER 교회학교 성장연구소장,
교회학교살리기, 갈리교스포츠포럼 사무총장, 예수마을교회)

SISTER 전도의 전도법의 역사

SISTER 전도법은 2000년 은혜장로교회에서 놀이체육으로 3개월 만에 어린이 100명을 전도한 김성기 목사의 부서별 3년씩 부흥연구의 비전을 바탕으로 2002년 대림교회 아동부 배가 부흥, 2005년 중고등부 배가부흥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되었다.

2007년 부서별 3배의 출석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지속적 부흥이 있게 하는 실제적인 전도법이다.

SISTER 전도란?

Sister 전도란,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듯, 누나는 동생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며 사랑으로 돌본다는 대명제하에 우리의 존재이유를 예수님처럼 전도에 두고 기도의 기초 위에 기독교 계몽운동이라는 방법론과 인재양성, 역동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영혼구원-생명사랑-생명돌봄 운동입니다.

동생(전도대상자)을 향한 누나(교사, 교육담당 교역자, 교회학교 학생)가 해야 할 일

1. 놀아준다(sports 전도)

- 유치부: 달리기, 높이뛰기, 줄넘기, 소꿉놀이, 태권도 발차기, 놀이용품으로 함께 놀아주기
- 아동부: 달리기, 높이뛰기, 줄넘기, 축구, 피구, 태권도 발차기, 꼬마야 꼬마야, 배드민턴

- 중고등부 : 축구, 농구, 야구, 발야구, 피구, 방송댄스, 베드민턴, 게임방, 노래방
- 청년부 : 축구, 농구, 야구, 베드민턴, 게임방, 노래방
- 2002년 놀이 체육으로 3개월 만에 은혜교회에서 100명 전도
- 2003년 대림중학교 20명 한번에 전도
- 2004년 중고생 10명 농구전도
- 감리교 어린이, 청소년 전국 축구대회 개최로 전국적으로 수 백 개 교회 축구를 통한 부흥
- 2008년 대림 유치부 축구단 조직
- 대림교회 어린이 축구단이 발족되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 조직 부흥
- 대림교회 농구 - 청소년 농구대회를 통한 성장

〈 청소년 스포츠 무한도전 〉

구 분	항 목	시 간	내 용
사전 준비	사전 준비	10:00~13:30	- 행사장 세팅 및 진행요원 A stand-by - 참가자 도착 및 점심식사
공식 행사	개회예배	13:30~13:40	- 참가자 입장 및 무대 앞 정렬 - 개회선언/기도/찬송/말씀/대표선수 선서 - 공지사항 전달 및 사회자 소개
프로그램	뽀빠이 체조	13:40~13:50	- 준비체조
	대림기네스대회	13:50~15:00	- 줄넘기 대회 (개인 1단 뛰기 남녀, 개인 2단 뛰기 남녀, 단체줄넘기) - 훌라후프 돌리기 - 고리던지기 - 투호 - 2인 3각 달리기 - 400미터 달리기 남녀 릴레이(청백 전)
	농 구	14:00~16:30	- 3on3 경기/중등부, 고등부 사전 접수 진행
	축 구	15:00~16:30	- 중등부경기 청백전/고등부경기 청백전

구 분	항 목	시 간	내 용
프로그램	피 구	15:40~16:00	- 여자부 경기/청백전으로 진행 (3전 2 선승제/1set 당 5분) - 축구경기 하프타임시 진행
폐식 행사	시 상 식	16:30~16:40	- 종합시상식 - 폐회사
	정 리	16:40~	- 그린타임

박흥세강사 (대림교회교사) 제공

2. 먹을 것을 준다. (invitation)

매월 1회 총출석·친구초청예배

음식 : 피자(1인당 1000원 한쪽)- 학년별 모임

이벤트 :

- 어린이 : 매직공연, 인형극, 이동식 입체영화, 레크레이션, 선물뽑기, 빼어로 마임
- 중고등부, 청년부 : 특강(간증)- 특별한 사람초대, 레크레이션, 선물뽑기, 학교 동아리 초청

* 초청장을 부지런히 돌린다. 음악, 연극예배, 영상예배등 다양한 예배구성.

* 담당 교역자, 교사, 학생 모두 한 주 기도하며 줄다리기 하듯이 지역에 사는 장기 결석자, 전도대상자를 초대한다. 출석률이 높게 나타난다. 5년간 피자를 먹고 있다. 잔치를 잘 준비하자.

3. 학교에 간다. (school- 학교 방문 전도)

- 유치부 - 유치원 프로그램 지원(인형극, 동화, 체육, 매직 등)
- 아동부 - 등하교 학교앞 전도, 점심시간 간식 나누기, 소풍, 체육대회 방문, 입학 졸업식
- 중고등부 - 등하교 학교앞 전도, 점심시간 간식 나누기, 기도모임, 봉사점수, 축제 방문
- 청년부 - 대학교 방문 동아리 조직, 직장 방문 식사하기

* 부서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학교 방문전도가 이루어

지게 한다. 한주에 한번정도 점심시간에 교회 학생들이 다른 반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 껌, 마이썸, 초콜릿, 레모나, 비타민 C 등을 준다. 격려한다. (원경순, 김혜령 교사)

* 학교앞 전도는 학생관리의 좋은 방법이다. (새신자, 장기결석자)

* 신앙엽서를 준다. 성경구절 카드를 준다.

* 1시간에 수천명을 만난다- 주님과 경이로움을 맛보라!

* 대림교회: 목금토 학교앞 전도. 5년 역사속에 만나는 학생수가 엄청 늘어났고 고3학생까지 세력이 크게 형성되었다.

- 일주일에 두번 이상 방문하면 효과가 크다. 교사들도 친구초청에 배 전 토요일에 참여하는 게 좋다.

4. 전화를 한다. (telephone- 전화심방)

- 생일 축하전화, 토요 주일 예배 출석 권면 전화, 평일 안부전화, 부모와 상담전화, 문자보내기, 새신자 전화, 학생이 학생에게 전화하기
- 전화시 따스한 말과 칭찬을 해 주도록 합니다.
- 김원중 선생 전화, 가정심방으로 반 부흥(교사수첩에 학교, 특이사항, 가정사항 세밀히 기록)

5. 가르쳐 준다. (education- 학습전도)

- 인재양성, 영어교실, 음악교실(드럼, 기타, 하모니카, 노래, 플룻 등) 매직교실, 스포츠 교실(인라인스케이트, 축구, 농구, 댄스 등), 논술, 수학교실, 과학교실, 비전교실(정치, 경제, 선교, 문화등), 시험 2주전 분반공부 후 모르는 문제 풀기(봉사교사 확보), 우수한 학생들이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김건태 교장선생님 학습교실, 임영식 권사님의 토요영어교실로 전도효과 나타남, 은혜교회 학습교실로 전교1등 학생배출. 어린이, 청소년 센터를 통한 선교
- 이두철 권사 대림유소년 축구교실로 전도효과 나타남.
- 제자교육, 방학말씀특강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꾼 양성

6. 잘했다고 칭찬한다. (reward- 전도상 시상)

- 2002년 대림교회 이기진 교감께서 전도왕 시상품으로 컴퓨터 기증으로 유형환 6학년 어린이가 인천에서 서울 대림교회로 20명 전도, 100명 어린이 1명이상 전도로 280명 등록
- 2003, 2004년 김하영 어린이 12명씩 전도 자전거 시상
- 2005년 박종찬 6학년 어린이 20명 전도 MP3 시상
- 2006년 안승규 중학생 16명 전도 문화상품권 10만원권 시상

* 전반기 , 하반기 시상도 좋지만, 4월, 10월, 12월 부서에 맞게 시상하면 효과가 더욱 나타남.

* 전도자 및 전도된 학생 명단 일람표 작성 홍보

* 전도의 중요성을 설교와 분반공부 시간에 강조한다.

* 전도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준다.

* 성적향상 상, 재능향상 상

- 구체적인 자료 : www.sim.or.kr

(감리교교회학교 부흥운동본부, 스포츠선교 연구소 홈페이지)

TEL: 010 4766 7166

- 대림, 진관, 만수중앙교회, 제천제일, 강남교회 부흥사례

- 영광, 풍성한, 행복한, 포도나무교회 등 작은교회 교회학교부흥 및 가정구원사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김경민 전도사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리학이 발달하고 상담이 보편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 애쓰지만 웬일인지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마음의 병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것 같은 아이들까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데...

마음의 병을 유발하는 요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자신을 대하는 태도, '자아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병은 옛 일이 되어야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학교에 다닌 아이들에게는 낯선 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의 병을 낫게 하고도 넘칠 만큼 넉넉한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병을 떨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앓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길을 잃다... 왜?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귀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응,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병은 옛 일이 되어야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학교에 다닌 아이들에게는 낯선 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옛 사람으로 여기면서 새 삶을 살려하고, 죄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은 부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의 병은 깊어집니다. 그들의 노력이 더욱 애처로운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채 따르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우리가 죄인일 때, 생명을 주셨지.)

“감사하고 있어.” (그럼에도 난 여전히 문제덩어리야.)

“성령님이 널 사랑하셔.”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멘!”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그분도 언젠가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절함으로 길을 잃고, 사랑을 오해함으로 다시 한 번 길을 잃게 됩니다.

• 부자연스러운 삶의 시작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자신감 있어 보여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원하는 듯 보여도)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편안해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남을 앞세우고, 자신의 생각이 나가 감정을 무시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널 엄청 사랑하셔.’ ‘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심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살려합니다. 스스로를 옛 사람으로 여기면서 새 삶을 살려하고, 죄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은 부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의 병은 깊어집니다. 그들의 노력이 더욱 애처로운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채 따르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그들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강화하고 사랑을 거절하게 합니다.

1) 회개를 오해하다. 그들에게 회개는 자신을 죄인이나 구제불능으로 여기며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렇지 않아도 부정적인 자아상은 더 강화되고, 그래서 사랑 받을 수 없다며 사랑을 거절합니다.

2) 겸손을 오해하다. 그들에게 겸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강화하고, 자신에게 머문 사랑을 물리는 데 사용됩니다.

3) 자기부인을 오해하다. 그들은 자기부인을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시하여 자신과 사랑 모두를 챙기지 못해 마음의 병을 키웁니다.

4) ‘사랑하다’의 균형을 잃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보통 사랑을 주고받는 일의 균형이 틀어져있습니다. 받으려고만 하거나 주려고만 하거나... 이들 중 교회 안에는 사랑을 주는 일에 치우친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로 뛰어들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손바닥만 한 사랑을 챙겨들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합니다. 그들에게겐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만 남게 되고,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다 상처입고 더 깊은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 사랑을 오해하다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믿으려하기 보다 느끼려 하고, 모든 걸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 오해하고, 자신의 결점이 사랑을 잃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믿으려하기 보다 느끼려 하고, 모든 걸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 오해하고, 자신의 결점이 사랑을 잃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1) 사랑엔 다양한 느낌이 있습니다. 강렬할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고, 따끔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없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믿음이라는 단짝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을 단순히 따스한 느낌 정도로 정의한 그들은 ‘예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며 좌절합니다.

2) 사랑은 모든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며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시길 바라다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길을 잃습니다.

3)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껴주며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들에겐 자신의 결점 때문에 사랑 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자신의 결점이 드러날 때마다 증폭되고, 그런 자신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다

이러한 오해들은 사소해보이지만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가르침을 점검하자!

먼저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역할이나 책임에 집중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아이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변화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순간은 자신이 사랑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은 '사랑하다(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주는 사랑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분한 답지 않으면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의 '지금'은 사랑을 나눠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받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삶의 여건들과 상황이 예수님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이는 의문(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을 허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의문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질문 자체를 금하고, (알 수 없는) 이유를 찾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주는 사랑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분한 답지 않으면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의 '지금'은 사랑을 나눠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받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기뻐하되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길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자기부인'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외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하는 열쇠임을 알게 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먼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람에게서 (드라마, 책, SNS 등) 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는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 은혜를 베푸는 사랑, 의롭다 하는 사랑,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랑, 바르게 하는 사랑, 이기게 하는 사랑, 함께하는 사랑, 견디게 하는 사랑, 기다려 주는 사랑 등. 하나님의 사랑을 폭넓게 경험하게 하고, 그 안에 자신을 폭~ 잠글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기뻐하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먼저 자신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점과 약점과 이루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갖고 있는 지금의 자신을 (하나님이 안아주시듯) 안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선생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죄라는 누더기를 입은, 단점과 약점을 뒤집어 쓴 약골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빛나는 옷을 입은, 마치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른 가르침으로 아이들의 영혼 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후의 '회개'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멈추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자긍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자신을 기뻐하되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길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자기부인'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부인의 신앙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를 보석으로 단
장함 같게 하셨음이라”_이사야 61:10

교사, 진심이런 된다.

오선화 작가

요즘 ‘어찌다가’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청소년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다가’ 청소년들을 품게 되고, ‘어찌다가’ 청소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다가’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저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찌다가’이지만, 주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우연도 없이 저를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무척 행복합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교회도 그만둔 아이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게 되어서 교회에 올 수 없다는 아이들, 엄마는 모범 성도이신데 자기는 날라리라 자기가 가면 엄마에게 폐가 되기 때문에 못 온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고, 만나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아이들을 자꾸 만나게 하실까? 제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때 어른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비전이 없어"라는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도 비전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 비전이 생겼잖아. 그럼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아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길 텐데. 그래서 교회 고등부교사로 지원하여 세상에서 비전이 없다는 아이들을 품는 '비전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4년째 비전반의 교사 '씨나 썸'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소설을 전공하는 날라리 대학생이고, 작가 말고는 아무 것도 꿈꿔보지 않은 저를 비전반 선생님이로 만들어 그 사랑스러운 쉬키들(저는 아이들을 쉬

진심의 관계는 먼저 공감으로 시작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심정이 되는 것.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히브리서13:1). 그런 공감이 있어야 아이는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비전반을 만들고, 장기결석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떠난 양들을 먼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키, 혹은 쉬키루라고 부릅니다. 제 새끼로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왜 사랑이냐고, 날 언제 사랑했냐고 따져묻는 쉬키들. 그들과 함께하며 저는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으로는 험상궂은 아이들이지만, 속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영혼들이라는 걸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거의 매일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일상을 카메라에 담다가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정말 신이 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마주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마구 찍는데, 이상하게도 정말 예쁜 풍경은 사진이 별로입니다. 아무리 보정을 해도 원래의 모습이 가장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렌즈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더욱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렌즈를 제거하면 눈부시게 예쁘죠. 환경이나 상황, 등급이나 성적 등의 렌즈는 우리가 아이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며 사랑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 렌즈를 집어치우고 진심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진심이면, 그것으로 성립된 관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1_ 공감

진심의 관계는 먼저 공감으로 시작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심정이 되는 것.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히브리서 13:1). 그런 공감이 있어야 아이는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비전반을 만들고, 장기결석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떠난 양들을 먼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단을 부르며 기도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아이의 이름이 쏙 들어왔습니다. 아, 이 아이를 먼저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명단에 함께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수단(이메일, 카톡, 채팅, 문자)을 이용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몇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

는 일진이에요, 진짜 답없는 애라던데요, 학교도 그만뒀대요, 다른 양을 먼저 찾으세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는 카톡의 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교회에는 절대 안 오겠다는 그 아이를 교회 건너편에서 만났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시켜놓고 앉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시작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몇 분간의 정적이 흐르고 난처한 시간에 처했지요. 그런데 문득 이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답없는 애'라는 소리를 듣는 그 아이의 심정은 어떨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정말 신기한건 그 물음에, 자신의 힘들었던 마음을 처음 알아주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내 안에서 가르치고 싶은 말이, 옳은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나는 그 말을 억누르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뭘까? 왜 이렇게 되었지? 아, 힘들었구나. 아, 속상했구나. 그러면서 묻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속상했지? 그럼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공감한다고 느끼고 속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의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공감을 꼽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뭘까? 왜 이렇게 되었지? 아, 힘들었구나. 아, 속상했구나. 그러면서 묻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속상했지? 그럼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공감한다고 느끼고 속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의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공감을 꼽습니다.

키워드2_ 포용

두 번째 키워드는 포용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아이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라는 말로 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악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어른들의 악함 속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뿐이니깐요.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면, 아이들의 속에 있는 진짜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아이가 그대로 있지요. 우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

우리는 ‘요즘 아이들’이라는 규정을 치워버리고, 무조건 풀어야 합니다. 이유와 상황이 궁금하더라도, 그걸 알려는 마음보다 풀으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세상의 아이들을 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 품어야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서울로 왔지요. 처음 생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 다. 엄마는 세 번째 아빠를 맞아들인 직후였고, 새 아빠와 함께 작은 가게를 꾸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용기를 내서 아빠에게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그 아빠가 좋았습니다. 첫 번째 아빠는 술을 빗 삼아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두 번째 아빠는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썼습니 다. 그런데 세 번째 아빠는 진짜 아빠 같았습니다. 자신을 생각해 주고 사랑해주었어 요. 아이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엄마와 상의를 한 후, 서울로 이사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정리해서 서울로 이사를 했지요. 하지만 비용에 맞추다 보니 가게 규모도 적어지고 수입도 줄었습니다. 보컬 트레이닝 학원에 등록할 수는 있었지만, 연습실까지 사용할 수는 없었지요. 피아노를 살 수도 없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보컬 선생님이 말해주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피아노가 있다고, 교회에 등록하면 어떻겠느냐고요.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갔습니 다. 그리고 교회에서 연습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교회에 와서 연습을 하고 청소년부에도 등록해서 잘 다녔습니 다.

그 모습을 본 교사는 일 년에 한 번 지급되는 장학금 신청 명단에 그 아이 이름을 넣었지요. 아이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학금 신청을 위해 부모의 성함을 적는데, 아빠의 성과 아이의 성이 달랐지요. 아이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되었지요. 교육부에서 왜 성이 다르냐고 잘못 적은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잘 적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결제부서에서 또 한 번 물었고, 지급부서에도 전달이 안 되서 지급부서에서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아이는 문제인지 몰랐던 자신의 상황이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아빠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든 교회가 싫었습니다. 아이는 얼마 후 교회를 떠났습니 다.

우리는 '요즘 아이들'이라는 규정을 치워버리고, 무조건 품어야 합니다. 이유와 상황이 궁금하더라도, 그걸 알려는 마음보다 품으려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세상의 아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키워드3- 신뢰

신뢰는 무조건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선 타이밍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고 품고 공감해주면 우리는 내 눈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타이밍만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씨를 심는 것이지요. 그 씨가 바로 틀지, 10년 후에 틀지, 20년 후에 틀지 모릅니다. 청소년 때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변화되어 찾아오기도 하고, 청년 때까지도 답이 없을 것 같은 아이가 집사가 되어 답을 찾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고 기다리셨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너머를 신뢰하세요. 지금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콧물을 찢찢 흘리던 꼬마가 어엿한 청년이 되는 것처럼, 아이에게 그 너머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4_ 시간

교사를 하려면 시간과 물질이 많이 들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이라는 키워드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시간, 정말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산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양을 위해 한 마디라도 기도한 시간, 양들과 만나거나 연락한 시간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쌓아두고 버리지 않으심이 느껴집니다. 시간을 투자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고 칭찬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투자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간은 '일대일'로 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일대일로 해주세요. 단체문자는 스팸입

청소년 때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변화되어 찾아오기도 하고, 청년 때까지도 답이 없을 것 같은 아이가 집사가 되어 답을 찾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고 기다리셨으면 주십시오.

마음이 가면 물질도 가고, 그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 사랑으로 흘러가고, 사랑으로 흘러가면 또 채워지게 되지요. 그렇게 사랑의 측면의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다. 홈쇼핑에서 오는 생일 축하 문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단체로 공지할 일이 있을 때는 적어도 이름이라도 부른 후에 '붙여 쓰기'하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을 교회에서만큼은 일대일로 만나주셔야 합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의 일대일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소그룹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맡고 계신 반이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원은 중심에서부터 하나의 끈들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의 중심에 교사가 서고, 여러 개의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끈을 하나씩 붙잡고 원을 그리지요. 각자 하나의 끈을 잘 붙잡고 있으면 그 원은 훨씬 단단합니다. 쉽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그 끈을 꼭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5_ 물질

물질 이야기를 하면 돈이 많아야 교사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 물질을 아예 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살 때 연인이 떠올라서 같이 사게 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먹을 때 내 자식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면 생각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문구류를 되게 좋아합니다. 지우개 하나를 사더라도 저희 반 아이들이 생각나서 몇 개 더 사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마음이 가면 물질도 가고, 그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 사랑으로 흘러가고, 사랑으로 흘러가면 또 채워지게 되지요. 그렇게 사랑의 측면의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키워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다면, 진심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의 관계가 되면 아이들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새끼 같은 맘으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함께 교사하시는 분이 어떤 스펙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심'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진심이 겨우 세상의 스펙과 견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것에서 파생된 관계로, 그 관계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승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

어쨌든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때 얼굴 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당신과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는 아홉 가지 두려움

김선희 전도사 (현)은성교회 담임

한국에니어그램연구원 인증 코치/Ennea Motion Trainer

교회

학교 수련회에 마지막 밤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생각해보자. 어떤 아이는 큰 그룹에 끼어서 밤새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아이는 조용히 한 두명의 친구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밤새 나누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수련회의 마지막 밤의 아쉬움과는 상관없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혼자 잠을 청하거나 책을 읽고 있을 수도 있다. 왜 아이들은 같은 상황 속에 다른 반응을 보일까?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이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게 하는 독특한 행동양식, 감정양식, 사고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 양식들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독특한 경향성을 만들어내고 그 경향성은 일관성 있게 그 개인의 특이성을 나타낸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격이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는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관찰한 경험이 있거나 직접 반응을 했던 경험이 있다. 우리는 그 경험들을 토대로 성격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성격상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삶의 중요한 자산을 쌓아 간다.

모든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게 하는 독특한 행동양식, 감정양식, 사고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 양식들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독특한 경향성을 만들어내고 그 경향성은 일관성 있게 그 개인의 특이성을 나타낸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격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몇몇 시행착오는 상당히 아픈 경험일 수도 있다. 우리 중 누구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성격대로 쏟아낸 말이나 나타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잃거나 인간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을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은 트라우마로 남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며, 미래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이쯤에서 두 가지 “왜(why)?”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 두 질문은 다음과 같다. “왜 우리는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이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가?”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의 뼈아픈 경험은 성격대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성격은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한 개인의 심리적/육체적 건강 상태에 따라 성격의 장점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단점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강박과 충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치 않을 때는 자신에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압박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밀어붙여 억지로 일을 처리하려다가 도리어 실패할 수도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표출함으로써 인간관계에 무리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격의 장점이 가져다주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단점으로 나타나는 강박과 충동이 가져다주는 뼈아픈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한 개인의 성격 특성은 생애 초기의 ‘어떤 동기’로 인하여 만들어진 패턴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지고 굳어짐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이 ‘어떤 동기’는 두려움, 욕구, 신념, 자아 개념 등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특별히 ‘두려움’을 ‘에니어그램(Enneagram)’이라는 도구를 통해 다루고, 그 두려움이 초래하는 (교회학교에서 교사와 아이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한 개인의 성격 특성은 생애 초기의 ‘어떤 동기’로 인하여 만들어진 패턴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지고 굳어짐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에니어그램은 탁월한 인간 이해 도구로서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

‘두려움’이란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태아시절 누렸던 완벽한 환경인 모체의 자궁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의 경험,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욕구가 좌절 혹은 충족되는 경험들을 통해 각 성격 유형이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무의식중에 자리 잡게 된다.

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동기의 영역까지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도구이다. 또한 에니어그램은 인간의 성격을 아홉 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 성격 유형의 도움이 되는 건강한 행동의 범위부터 자신과 타인을 방해하는 불건강한 행동의 범위까지 인간 행동의 광범위한 영역을 설명한다. 또한 건강한 수준부터 불건강한 수준까지의 사고와 감정 패턴까지 설명한다. 그리고 그 패턴에 숨겨진 동기를 규명함으로써 한 개인이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뼈아픈 경험’을 만드는 패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에니어그램의 아홉 가지 유형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유형-개혁가, 2유형-조력자, 3유형-성취가, 4유형-개인주의자, 5유형-탐구자, 6유형-충성가, 7유형-열정가, 8유형-도전자, 9유형-평화주의자이다. 각각의 유형들은 그 명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로 인해 생겨난 주의 초점이 있다. 각 유형은 그 주의 초점에 따른 행동, 감정, 사고 양식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1유형-개혁가만 다루고자 한다.)

먼저 ‘두려움’이란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태아시절 누렸던 완벽한 환경인 모체의 자궁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의 경험,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욕구가 좌절 혹은 충족되는 경험들을 통해 각 성격 유형이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무의식중에 자리 잡게 된다. 1유형-개혁가의 경우에는 결함 혹은 부패에 관한 두려움이 있다. 자신에게 어떤 결함이 있어서 모체의 자궁에서 쫓겨나고 생애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욕구가 좌절되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핵심 신념 위에 회피하고자 하는 무엇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무엇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 1유형-개혁가의 결함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여기게 만들고 그 결함을 해결하고 올바르게 되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지켜야한다는 핵심 신념을 형성한다. 그 신념위에,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 혹은 결함이 있는 것처

럼 보이는 것을 피하고자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르게 되는 것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서 1유형-개혁가는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라는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그러나 1유형-개혁가의 자아개념과 달리 이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판단’하며, 합리적이지 않은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분개한다’. 여기서 ‘판단’은 1유형-개혁가의 사고패턴이며, ‘분개’는 감정패턴이다. 이 사고와 감정 패턴은 합리적이지 않은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1유형-개혁가 자신에게도 적용되어 옳은 일, 옳은 행동을 해야 만족하는 내면 비평가를 작동시키고,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수행하게 한다.

그래서 1유형-개혁가의 주의초점은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행하는 것과 올바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교회학교 교사가 건강할 때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목표를 위한 올바른 수단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현명한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사가 제시한 목표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고 느끼며 모든 면에서 일관성 있고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1유형-개혁가인 교회학교 교사가 평균 수준일 때는 강한 자기 통제와 자기주장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판단하고 완벽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아이들은 이런 교사를 대할 때, 마치 꾸중을 듣고, 심판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진다. 아이들은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수록 이런 교사와 거리를 두게 되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를 더 이상 나눌 수 없게 된다.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자신을 판단할 재판관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자기주장이 약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교사들 사이에 또 다른 벽을 만들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자신을 판단할 재판관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자기주장이 약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마도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기를 권한다.

다. 하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우리가 더 이상 뼈아픈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격대로 사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내 안에서 특정 패턴이 나타나는 때를 인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언제 내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완벽을 요구하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1유형-개혁가들은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다, 잘못되었다, 옳다, 그르다’등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때를 잘 인지하는 것이 패턴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긴장된 마음을 이완시켜 패턴이 나타날 때, 그것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 분명히 내면 비평가는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완벽하게 만들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바로 반응하여 내면 비평가가 원하는 대로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판단을 유보하고 불완전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도는 세상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도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1유형-개혁가인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마도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기를 권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8~10)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울에게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결함을 없애기 위해 마음의 애씀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의 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은 마음의 애씀을 내려놓고, 결함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할 때,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본문에서 ‘이것’은 바울이 사탄의 가시를 지칭한 것인데,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앓았던 간질이라는 병이라고도 한다. 그 사탄의 가시가 육체의 질환이든 혹은 다른 문제이든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에게는 중대한 결함일 수 있다. 바울은 그 가시가 사라지기를 간구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였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울에게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결함을 없애기 위해 마음의 애씀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의 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은 마음의 애씀을 내려놓고, 결함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할 때,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1유형-개혁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함과 부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깨달음 속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참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서 1유형-개혁가는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고 받아들이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 신앙의 멘토로, 하나님께서 아이들 각자에게 주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코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내 감정, 내 맘대로

최동현 목사(국제공인 프로코치(PCC)
국제공인 NLP 트레이너, 충주에덴교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62:1)

학습목표

감정의 원인이 되었던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른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 이상의 선택권을 가져올 수 있다.

개요

제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갇혔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 박사’¹⁾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자극’이 주어지면 이미 정해진대로 ‘반응’을 하며 ‘감정’은 이 ‘반응’의 주체자가 됩니다. 때로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순식간에 자극에 대해 반응합니다. 본 교재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보여주고 이 ‘공간’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1. 마음으로 듣기

많은 사람들이 ‘감정’²⁾을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감정’이 고조(증폭)되기 시작하면 마치 태풍이 몰아

그가 선택한 것은 ‘잡잡히’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부터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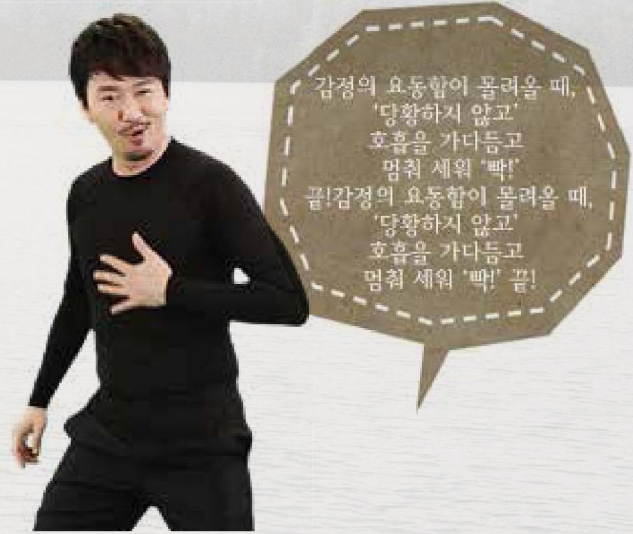
1) Viktor E. Frankl (1905~1997)

2) 본 교재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치는 것처럼 흔들리며 마침내 중심을 잃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크게 흔들리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를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많은 대적들 앞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금방 점령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잠잠히’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부터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주변에서는 그의 중심을 흔들기 위해 감정의 요동함이

몰려올 때,
‘당황하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고
멈춰 세워 ‘뻑!’
끝!

달려들고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고요합니다. 마치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는 비바람에 비해 태풍의 중심은 구름 한 점 없이 평온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감정’을 다루는 해법이 있습니다. ‘감정’을 흔드는 자극이 올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II. ■리로 이해하기

‘내 감정’을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NLP³⁾코칭 전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1. 행동과 의도를 분리

전제: 행동이 곧 그 사람은 아니다. 대상자를 받아들이고 행동을 변

3) 신경언어 프로그래밍(Neuro-Linguistic Programming, 신경언어학) 존 그린더(John Grinder)와 리처드 밴들러(Richard Bandler)에 의해서 시작된 의사소통 기법, 자기계발 기법, 심리요법 기법을 중심으로 한 체계.

‘내 감정’을 ‘내 맘대로’ 하려는 노력은 ‘내 감정’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정’이 만들어진 곳이 나이고, ‘감정’으로부터 빚어진 모든 결과의 책임자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주었던 ‘책임감’을 나에게로 가져올 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화시켜라.

정확히는 ‘행동으로부터 의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스스로 의도를 만들어서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작아지게 합니다. 행동과 의도를 같은 것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도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2. 긍정의도를 찾기

전제: 누구나 자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 두 영역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최선이고 다시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찾고 있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삶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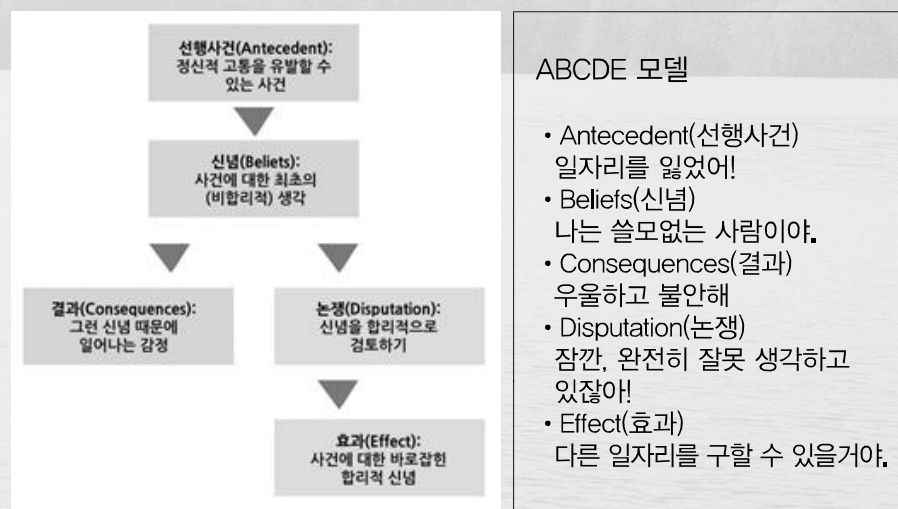
3. 이 모든 작업은 나를 위해서

전제: 당신 마음의 책임자는 당신이다. 따라서 결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주관적인 몰입 상태에 특정 자극을 더하면 ‘신경학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특정 자극이 주어질 때 우리는 예전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위의 1-2 과정이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타인의 행동에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감정’으로 묶어 두었던 자신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감정’을 ‘내 맘대로’ 하려는 노력은 ‘내 감정’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정’이 만들어진 곳이 나이고, ‘감정’으로부터 빚어진 모든 결과의 책임자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주었던 ‘책임감’을 나에게로 가져올 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III. 몸으로 경험하기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이미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의 원리를 근거로 하여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ABCDE 모델’¹⁴⁾은 심리학적인 연구에서도 입증된 연습이기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순서에 따라 빈 칸을 채워가면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믿음 체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거듭 할수록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 ABCDE 모델

1) 다음과 같이 5개의 열을 그립니다.

Antecedent (선행사건)	Beliefs (신념)	Consequences (결과)	Disputation (논쟁)	Effect (효과)

2) 최근에 겪은 상황을 떠올립니다. C(결과)열에 불쾌한 감정과 그로 인한 행동을 적습니다.

3) A(선행사건)열에는 감정을 유발한 원인으로 보이는 사건을 적습니
다.

4) ABCDE 모델의 핵심은 B(신념)를 알아내는 데 있습니다. A(선행

4) 합리적 정서간행동 치료 이론과 치료법의 창시자로 유명한 '앨버트 엘리스(Albert Ellis, 1913~2007)' 박사가 만들어 낸 것이며, 사람의 지각과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다. 앨버트 엘리스는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논리적이고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이론으로 20세기 심리학에 크게 공헌했다.

우리는 갈등상황을 통해 각자의 신념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냈던 '공간'에서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똑같은 반응으로부터 '멈출 때' 이 모든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건)가 일어난 직후 무슨 생각이 머리에 스쳤는지 생각해 봅니다.

5) 다음으로 C(결과)의 감정을 유발하는 제한된 신념을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D(논박)옆에 기록합니다.

- B(신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 A(선행사건)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이유)이 있습니까?
- 다른 사람이 같은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 내가 존중하는 사람에게 내 믿음을 말하면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비슷한 믿음을 가졌지만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있었나요?
- 그렇다면,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이번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6) 마지막으로, E(효과)옆에는 D(논쟁)옆에 적은 내용으로 인한 결과를 적습니다. A(선행사건)에 대한 이해와 믿음, 그로 인한 감정과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합니다.

갈등을 형성시키는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갈등의 요인을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내지도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대'했던 바가 좌절되었거나 스스로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갈등상황을 통해 각자의 신념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냈던 '공간'에서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똑같은 반응으로부터 '멈출 때' 이 모든 가능성이 열립니다.

〈별첨 1〉



Antecedent (선행사건)	Beliefs (신념)	Consequences (결과)	Disputation (논쟁)	Effect (효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건에 대한 최초의 (비합리적) 생각	그런 신념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	신념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사건에 대한 바로잡힌 합리적 신념
2	3	1	4	5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다음 단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선생님, 힘내세요!

이세나 전도사 (한샘 갈리교회)

매년 성경학교가 끝나면 사역자들은 웬지 허전한 마음이 든다.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나머지 6개월은 ‘아이들과 뭘 할까?’ 걱정 반 기대 반이다. 그쯤 되면 어김없이 교사들이 한두 명씩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저런 사정 이야기를 하며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그런 사정은 학기 초부터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사역을 해오시다가 여름성경학교가 지나면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며 사역을 내려놓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그렇죠. 힘들었겠어요’ 하면서 다 들어본다. 그 사정을 일단 듣기만 하면 ‘그 힘든 가운데서 매주 그렇게 수고해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눈물부터 난다. 사역을 하면서 주일이 되면 아이들 챙기고 함께 예배드리느라 선생님들과 눈 마주치고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다. 함께 모여 이야기해도 늘 아이들 이야기가 먼저다. 정작 선생님들의 안색을 살필 여유나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반성이 든다. 그래서 여름행사가 끝나면 ‘선생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하는 마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같이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해도 모두들 바빠서 맞는 시간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

모든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게 하는 독특한 행동양식, 감정양식, 사고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 양식들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독특한 경향성을 만들어내고 그 경향성은 일관성 있게 그 개인의 특이성을 나타낸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격이라고 부른다.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로 흐르고 살아남기 위해 쫓아야 하는 ‘스펙’이 늘어나면서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교회 현실을 볼 때 자기 시간을 나누고 에너지를 나누어주며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게 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다른 사역들은 기계나 기술로 대체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기에 ‘교사’들은 ‘기독교교육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번 기독교진흥 주일에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교사들이 서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회중예배 가운데 교사들을 격려하는 의식을 함께 해보시길 제안한다.

모든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식순을 각자 교회 사정에 맞게 식순을 넣으시면 좋겠다.

1. 교사 축복 예배 전에 준비할 사항

1) 매주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을 사진 찍어둔다. 선생님들이 모르시게 자연스럽게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둔다.



〈피었다 지는 화려한 꽃이 되기보다, 다음세대를 위해 열매가 되기로 한 당신은 교사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예쁜 액자에 넣어 선물을 준비한다.

2) 종이비행기를 예배 교인 수만큼 접어 주보에 끼워둔다.

예배 시간에 종이비행기 날개 쪽에 감사의 메시지를 적는 시간을 갖는다.

3)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다양하게 담아서 ppt로 돌린다.

모든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게 하는 독특한 행동양식, 감정양식, 사고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 양식들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독특한 경향성을 만들어내고 그 경향성은 일관성 있게 그 개인의 특이성을 나타낸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격이라고 부른다.

2. 교사 축복 예배 순서

순 서	내 용	체 크
교사소개	담임목사님 축도 전에 교사소개를 한다. 교사들은 모두 앞으로 나온다. - 교회학교교장 : 2014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신 교사들을 소개합니다. - PPT: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사들의 모습과 교사 한명 한명의 개인사진과 이름을 넣어 ppt로 만든다.	방송실 : 교사들을 격려하는 감동적인 찬양으로 PPT 배경음악으로 준비한다

순 서	내 용	체 크
교회학교 교장 멘트	교회학교 교장 : 사회가 바빠질수록 자기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자기가 꽃이 되기 위해 자기에게 시간을 쓰시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로운 열매가 되는 길 선택하고 걸어가시는 이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 분들입니다. 오늘 이분들을 격려하며 다 함께 축복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다함께 축복송	〈아곺의 축복〉을 전 교인이 함께 불러준다. - 교회학교 교장 : 미리 나눠드린 종이비행기에 감사의 메시지를 적으셔서 찬양이 끝나면 선생님들께 날려주세요. * 마지막 소절에서(나무가 되어줘~)을 부를때 교회학교 교장: 축복의 마음을 담아 종이비행기를 날려주세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진을 ppt로 돌리고 찬양 가사는 그 밑에 띄워준다.
담임목사님 축도	* 담임목사: (축도를 하기 전) 오늘 자녀가 교회학교에 있는 성도님들은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카톡으로든 문자메시지로든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헌신해주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주 되길 바랍니다.	